



6·3 지방선거가 한달 남은 3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내에 설치된 지방선거 홍보 조형물 앞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지방선거 한달 전... 제주정가 세걸집 본격

도지사 선거, 민주·국힘·진보·무소속 '4파전' 정당과 후보 진영, 조직 정비·표심 공략 '속도' 14~15일 후보 등록... 21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 정가가 본격적인 선거전 국면에 진입했다. 향후 4년간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 도지사를 비롯해 교육감과 도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동시에 치러지면서 어느 때보다 뜨거운 승부가 예고된다. 각 정당과 후보 진영은 본선 무대를 앞두고 조직 정비와 표심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을 이끌 제주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 진보당 김명호 후보, 무소속 양윤녕 후보의 4자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비교적 높은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역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흐름 속에서 치러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제주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 초반부터 국민의힘은 중앙 정치 이슈보다 지역 현안 해결 능력과 후보 경쟁력을 앞세워 추격전에 나서는 모습이 기대된다. 진보당과 무소속 후보들도 양당 중심 구도 속에서 틈새 표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선두권을 형성한 위성곤 후보는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과한 뒤 지

난달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했고, 3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선 체제로 전환했다.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오영훈 제주지사, 문대립 국회의원측과 잇따라 '원팀' 기조를 확인하며 조직 결집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출신의 인지도와 조직력을 앞세워 승기를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지난 3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 관료라는 이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민생경제 회복과 투자 유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본격적인 TV토론과 후보 검증 국면이 시작되면 양강 구도로 재편될 여지가 있다는 기대감도 읽힌다. 진보당 김명호 후보는 제주 제2

공항 건설사업 주민투표 실시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거대 양당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무소속 양윤녕 후보 역시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정치 강화를 내세우며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는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비롯한 갈등 현안에 대한 후보별 해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방안 등이 꼽힌다. 여기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전개될 정책 검증과 후보 간 토론 결과도 표심을 가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일정도 속도를 낸다. 오는 12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며, 14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21일부터 6월 2일 자정까지 이어지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실시된다. 위영석·김채현기자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 8명→13명 확정

도의회,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4·반대 12·기권 1명 '비례의석 배정 정당 투표율 5% 이상' 조항, 논란 여전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원을 현행 8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4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7명 가운데 찬성 24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주도의회 총 정수를 현행 45명으로 유지하는 한편, 사라지는 교육의원 정수를 비례대표 의원 정수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정당 투표율이 5% 이상 돼야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 받을 수 있는 이른바 '5% 봉쇄조항'을 국회가 워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손보지 않으면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는 등 제도 취지가 퇴색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 비례대표 몫까지 거대 양당이 독식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3분의 1에 가까운 의원들이 반대한 이유도 이같은 문제 의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도 임시회 폐회사에서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비례대표 증원 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미흡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한라일보, 6·3 지방선거 특별취재반 운영

한라일보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4일부터 특별취재반을 구성·운영한다. 특별취재반은 제주도지사·제주교육감 선거,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주도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한편, 선거별 판세 점검 등 다양한 기획 보도를 통해 선거 이슈를 입체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공약 전달을 넘어 정책 중심 보도를 강화하고, 후보 간 공약 비교와 실현 가능성 분석 등 유권자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왜곡 정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팩트체크 보도도 병행한다. 한라일보는 이번 특별취재반 운영을 통해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선거 의제를 발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중심 보도를 강화한다.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 농어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균형 있게 담아내는 데 주력한다. ▶특별취재반 ▷총괄:고대로 편집국장 ▷정치부:부미현·이상민 부장, 김재현·오소범 기자 ▷교육문화체육부:진선희 부국장, 김지은 차장 ▷행정사회부:백규탁 부장, 박소정 차장, 양유성 분석 등 유권자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상부:강희만 부국장.

바다 570km 건너 제주 밀입국, 군·경 '깜깜'... 4면 / 오름 등급 나눠 관리... 5면

5일 어린이날 신문 쉽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시다

자세한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위해 정책과 공약을 꼭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선거일 투표

일 시 |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장 소 | 지정된 투표소
* 거주지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

일 시 | 5월 29일(금)~5월 30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장 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지방선거 투표용지 가이드

- 지방자치단체장
- 시·도지사 선거
- 지방의회 의원
- 시·도 의원선거(지역구)
- 시·도 의원선거(비례대표)
- 지방교육자치
- 교육감 선거

* 서귀포시는 국회의원보궐선거도 함께 실시합니다.

지방선거 투표 전 체크리스트

- 일정 확인하기
- 내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확인하기
- 신분증 챙기기
- 유의사항 확인하기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됩니다.
▶ 투표할 때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사전투표를 한 후 선거일에 그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투표지를 찢는 등 훼손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